하늘사랑

MARCH 2025 vol. 525

3

cover story 섬진강의 빛내림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이광자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게 날씨를 확인하세요





하늘 사랑

vol. 525

3MARCH 2025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11~14층)

전화 (02)2181-0356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5년 3월 5일

발행인 장동언

편집장 홍기만

편집기획 김승민, 마재준, 김지은

디자인/인쇄 사)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인쇄사업단



cover story 섬진강의 빛내림 2016년 기상기후사진전〈입선〉이광자

Contents



Special Theme

포커스 뉴스

02 기상청사람들_ 기상관측차량 편

04 2024년, 2025년 설 기간 한반도 대기 화학성분 변화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자·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Weather Talk

- 06 계속 써야 더 중요해지는 거야: 영화 '작은 아씨들'(2019)
- 08 초록 초보에서 그린 핑거로...
- 10 맛있는 계절_ 봄소식을 알리는 카레 꼬막전
- 12 기상청이 기록한 시대의 온도
- 14 봄만 되면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꿀피부를 지키는 방법

Theme Story

- 16 새단장한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으로 놀러오세요~!
- 18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위성데이터 활용
- 20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기상청 청년인턴에 도전해보세요
- 22 기상이의 명소탐방_ 기상레이더 실증관측소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5 Platform
- 26 오늘, 당신의 날씨









도로 위를 달리는 기상청!

기상관측차량 편



기상청 대변인실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기상청)을 운영하며, '기상청 사람들'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휴먼 스토리까지 소개하는, 그야말로 기상청 직원이 주인공인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기상관측차량을
소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상청 유튜브로 소개되는 〈기상청 사람들〉 주제를 선정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지난 12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설 관측과 예보 업무, 한파 영향예보 등 겨울철에도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 어떤 업무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저의 눈에 들어온 업무는 바로 '기상관측차량의 도로살얼음 특별 관측'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기상청에서 기상관측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국남 주무관님을 섭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촬영 현장 속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리얼 관측 비하인드를 공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오전 8시, 수도권기상청에 도착했습니다. 11월에 내린 이례적 폭설이 아직도 녹지 않아 12월의 수도권기상청은 곳곳이 하얗게 덮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기상관측차량을 점검 중인 한국남 주무관님을 만났습니다. 차량 뒤편에서 도로 표면의 온도와 습도, 도로 상태를 관측하는 노면 센서를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런저런 장비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한국남 주무관님 코에서 코피가... 저희 모두 깜짝 놀랐지만, 주무관님은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촬영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지 걱정되었지만, 주무관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장비 세팅을 마친 후,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김도수 팀장님과 함께 출동 준비 완료! 오늘의 목적지는 교량 구간이 많아 도로살얼음 발생 위험이 높은 경기도 화성시의 외곽도로였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노면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남 주무관님은 차량에 설치된 관측 모니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를 이동했을까.. 마침, '도로살얼음 주의'라는 문구가 도로 위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무관님께서 도로살얼음에 가장 취약한 구간은 교량(고가도로 또는 다리)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지열(地熱)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특성상 찬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 설명과 함께요. 역시 기상청 직원답습니다! ♥♥







기상관측차량은 대부분의 기상관측장비가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있어서 높이 제한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트럭용 내비게이션(4미터 높이 설정)을 사용하며, 주행 중에도 차량의 높이 가 제한되는 구역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무게 중심이 높아 커브를 돌 때 위험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운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상 관측은 왜 중요할까요? 한국남 주무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보가 열 매라면, 관측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정 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관측이 필수라는 것이죠! 기상관측차량은 관측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 직접 출동해 실시간 관측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기상청 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청사로 복귀한 후, 현장에서 구간별로 측정한 도로 관측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도로의 상태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실제 관측 결과에서는 도로가 젖어있거나 얇은 얼음층이 형성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기 상관측차량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차량이 기상관측차량 1호 차량이에요~"

주무관님께 기상관측차량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여쭤보니, 드라마〈기상청 사람들〉 촬영 지원을 나갔던 경험을 떠올리셨습니다. 수도권청 기상관측차량이 기상청의 1호 차량이어서 당시 드라마 촬영 현장에 지원을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촬영 현장인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가 운영을 지원한 기상관측차량이 드라마에 담기는 순간을 보니 무척 뿌듯하셨다고 합니다. 드라마 애청자였던 저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배우 송강 님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었죠.♡ 기상관측차량 출연신이 궁금하다면? 기상청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공개된 후, 시청자분들께서 "기상관측차량이 있는 줄 몰랐다!", "기상청이 도로 노면 관측도 하 는군요.", "이 차량을 도로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반가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요. 많은 분이 기상관측차량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불꽃놀이에는 칼륨(K), 스트론튬(Sr), 바륨(Ba) 등 화학성분이 주요하게 사용된다.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는 2024년 설 기간 안면도, 고산에서 PM₁₀ 에어로졸을 채취하여 이 주요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5년은 서귀포에서 준실시간 에어로졸이온장비를 이용하여 대기 화학성분을 분석한 후, 전년과 올해 설 기간 한반도 대기에어로졸 성분 변화를 파악하였다.

불꽃놀이와 대기환경의 관계

불꽃놀이는 화약과 금속 분말의 혼합된 물질을 공중에서 폭발 또는 연소시켜 빛과 소리를 즐기는 놀이이다. 이때 불꽃 색은 혼합된 금속에 영향을 받는데, 스트론튬(Sr)은 빨간색, 바륨(Ba)은 녹색, 구리(Cu)는 푸른색, 칼륨(K)은 보라색을 띤다. 이 중 칼륨은 불꽃 색을 나타내기도 하나, 불꽃놀이 폭발용 충전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불꽃놀이는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키고, 대기중에 잔류된 금속성분은 인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년 설 기간(2월 9~14일) 에어로졸 화학성분의 특성 및 기류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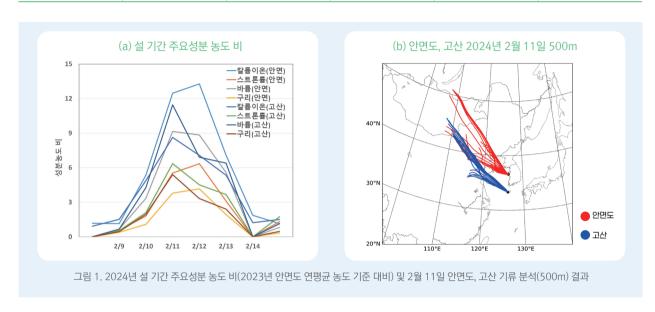
2024년 2월 9일 밤부터 중국 전역에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맞이하는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는 2월 9부터 14일까지 안면도,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에서 PM₁₀ 에어로졸을 채취하여 화학성분(이온 및 금속)을 분석하였다.

설 기간에 안면도, 고산에서 관측한 PM_{10} 에어로졸의 칼륨이온(K^{+}) 농도는 각각 $0.2 \sim 2.7 \ \mu g/m^{2}$, $0.3 \sim 1.7 \ \mu g/m^{2}$ 로 나타났다. 금속성분 중 스트론튬은 안면도, 고산에서 각각 $1.4 \sim 15.9 \ ng/m^{3}$, $1.3 \sim 15.9 \ ng/m^{3}$, 바륨은 각각 $2.8 \sim 39.3 \ ng/m^{3}$, $2.9 \sim 49.3 \ ng/m^{3}$, 구리는 각각 $1.6 \sim 17.5 \ ng/m^{3}$, $1.9 \sim 22.7 \ ng/m^{2}$ 를 보였다. 2023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안면도 PM_{10} 화학성분 연평균농도는 칼륨이온 $0.2 \ \mu g/m^{3}$, 스트론튬 $2.5 \ ng/m^{3}$, 바륨 $4.3 \ ng/m^{3}$, 구리 $4.2 \ ng/m^{3}$ 이다. 화학성분 농도가 높게 관측된 119, 129의 경우, 안면도 칼륨이온 $12 \sim 13$ 배, 스트론튬은 약 $12 \sim 13$ 배, 그리고 구리는 약 $12 \sim 13$ 배 $13 \sim 13$ 대 나타났다(그림 $13 \sim 13$ 대 나타났다(고림 $13 \sim 13$ 대 $13 \sim 13$

2월 11일 안면도와 고산의 기류 분석을 통해, 대기의 이동에 따른 화학성분 유입 경로를 알아보았다. 안면도는 베이징과 텐진을 거쳐 유입되는 기류와 선양과 다롄을 거쳐 남하하는 기류의 영향을 받았다. 고산은 베이징, 텐진, 칭다오를 지나 고산으로 유입되는 기류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중국에서 불꽃놀이로 발생한 오염된 대기에어로졸이 2024년 설 기간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b)).

○ 안면도.	. 고산지역	2024년 설	기간 불꽃놀이	주요성분 농도
--------	--------	---------	---------	---------

지역	관측 기간	칼륨(μg/m³)	스트론튬(ng/㎡)	바륨(ng/㎡)	구리(ng/㎡)
안면도	2023년 연평균	0.2	2.5	4.3	4.2
안면도	24.1.9. ~ 14.	0.2~2.7	1.4~15.9	2.8~39.3	1.6~17.5
고산	24.1.9. ~ 14.	0.2~1.7	1.3~15.9	2.8~49.3	1.9~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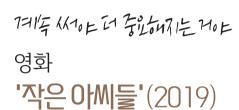


2025년 설 기간(1월 28~30일) 제주 대기에어로졸의 영향

2025년 설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험동에서 준실시간 에어로졸이온장비로 분석한 결과, 칼륨이온성분이 1월 29일 오전 8시부터 농도가 증가하여 오후 2시에 0.4 µg/㎡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그림 2). 그러나 2023년 고산 연평균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중국 불꽃놀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엔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가 많은 눈과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았고, 27일은 황사로 인한 영향이 있어 실시간 분석자료에는 큰 변동성이 없었다. 따라서 차후 2025년 채취된 시료를 불꽃놀이 주요금속성분인 스트론튬과 바륨 등의 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더 명확하게 중국 불꽃놀이가 한반도에 준 대기에어로졸의 영향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림 2. 2025년 설 기간 칼륨이온성분 농도



김동진 작가



출처: 네이버



출처: 네이버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설 명절 연휴를 포근하게 보낸 직후 찾아온 입춘 한파속에서 영화 한 편을 고르고 노트북을 펼친다. 3년 전 이 지면 3월호에서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0)를 다루며 조지 엘리엇의 소설 속 한 대목의 인용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음은 이땅에서 보낸 유년 시절 때문이며,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따던 그 꽃들이 봄마다이 땅에서 다시 피기 때문이다."* 봄을 함께 맞이하자며 독자들에게 편지처럼 건넸던 이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실는지.

위 소설 속 구절은 그레타 거윅의 영화 <작은 아씨들>(2019)에서 대사로 등장한다. 조와 베스 두 자매는 바닷가에 앉아 책을 낭독한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네 자매 중 둘째인 조는 글을 써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셋째 베스는 넷 중 제일 심성이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지만 병약해 바깥출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뉴욕에서 글을 쓰며 하숙하던 조는 베스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에 고향으로 달려오고, 동생에게 힘을 주기 위해 몇 년 전 네 자매가 함께 거닐었던 바다에 온 것이다.

"고난이 많았기에 즐거운 이야기를 썼다."

- 루이자 메이 올컷(1832~1888)

문학이나 영화 속 등장인물의 형제자매들 중 누군가 아프거나 단명하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이 대목을 언급하는 건 조가 글을 쓰는 이유에 베스의 존재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베스를 위해'라는 제목의 글을 쓸 정도로. 원작을 쓴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자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설 『작은 아씨들』은 자매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연대기처럼 묘사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메그와 조 두 언니가 자기만 쏙

빼놓고 재밌는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심술이 났던 막내 에이미는 조가 아끼는 원고를 서랍에서 찾아내 불에 태워버린다. 이 일로 조와 에이미는 크게 다투지만, 다음날 조가 이웃 청년 로리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길에 에이미가 따라나섰다 빙판이 녹아물에 빠지는 일을 계기로 화해하게 된다.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 골몰했던 조는 가족의 결혼과 상실을 두루 겪으며 훗날 자기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가족이 티격태격하고 웃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읽겠어? 중요한 것도 없는 얘기잖아"라고 조는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철없는 막내 같기만 하던 에이미가 놀라운 한마디를 던진다. "그런 걸 안 쓰니까 안 중요해 보이는 거지. 계속 써야 더 중요해지는 거야." 이 이야기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작은 아씨들>은 7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일어나는 가족의 일상을 과거 각 시점과 현재의 교차편집을 통해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서사로 만들어낸다. 원작 소설이 워낙 방대한 분량으로 쓰인 탓에 압축된 장면들도 존재하지만, 영화만으로 따라가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자매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집에서 어설픈 분장을 갖춘 채연극을 하고, 이웃에 사는 남자를 좋아하고, 무도회에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소설이 된다. 조가 쓰는 이야기의소재로 하나씩 빛을 얻기 시작한다.



출처: 네이버



19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의 빛나는 점은 풍경과 의상을 통해 사계절을 충실하게 묘사하되 주로 겨울과 봄을 사이로 많은 에피소드를 펼친다는 점이다. 크리스마스에 가난한 이웃집에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과 친구들에게 멸시받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드레스 옷감을 사는 장면이 교차하는가 하면, 봄이 되자 조는 자신이 쓴 원고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편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판사관계자와 결말 묘사에 대한 담판을 짓는다.

는 녹고 싹이 돋는 계절이 되면 지난날 별로 대단한 이야기가 되지 못했던 순간을 돌아보게 된다. 여전히 움츠린 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내 일부라고 쉽게 착각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문학이 그렇듯 영화 역시 당신은 고결하고 다른 무엇에 의해 억눌릴 수 없는 천성을 갖고 있다 말해 준다. 훗날 루이자 메이 올컷의 전기를 쓴 코닐리아 메그스 역시 "『작은 아씨들』은 자연스럽고 사실적이었으며 복잡하지 않은 데다 억지로 감동을 자아내려 하지 않았는데, 이런 책을 소녀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회고한다. 지금 시시해 보이는 시절들이 결국 내 고유한 서사가 된다. 다시 맞은 이 봄이 그 서막이 될 것이다.



Weather Talk



초록 초보에서 그린 핑거로...

최서연 방송작가

여기저기 여린 연둣빛이 피어오르는 풍경이 보이면 자연스레 마음이 설 렙니다. 3월은 꼭 그런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3월입니다. 겨우내 많이 그리웠지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거든요. 아직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한낮의 햇살은 한층 부드러워지고 공기속에는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요즘입니다. 거리엔 하나둘 두꺼운 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도 보이고 가끔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선 묘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3월이 설레는 가장큰 이유는, 바로 초록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움트고, 길가의 화단에서 싱그러운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저 초록초록한 '봄'을 내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나 쉽게 키운다는 '스투키'마저 집에 들인 지 석 달 만에 임종하게 하는... 그 유명한 이른바 '식물 저승사자', '식물 똥손', '연쇄살식마'였으니까요... 물도 열심히 주고, 햇볕도 잘 쬐어 주었는데 이상하게얼마 안 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분명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말이죠. 식물이 금세 죽은 이유는 오히려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쁘다고수시로 물을 주고, 햇볕 쬐어 주라고 해서 직사광선에 놓아두는 대참사를 일으키는 등...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제작한 방송에서 식물 동호회, 테라리움 동호회, 그리고 반려식물병원이라는 아이템을 다루고 난 뒤 저도 다시 한번 식물 키우기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이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예전엔 키우고 싶은 식물을 마구잡이로 구입했다면, 이제는 우리 집 환경 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채광을 살피고,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서 식물을 골랐어요.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편백나무, 몬스테라, 그리고 테라리움(작은 유리병 안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꺼 번에 모든 식물을 들인 건 아니었고요. 하나둘씩 들였는데 제가 워낙 추진력이 있다 보니 각각의 식물을 들이는 간격이 짧긴 했습니다.

모든 식물마다 물은 언제 줘야 하는지, 햇볕은 어떻게 쬐어 줘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만큼, 이번엔 물을 줄 때마다 잎을 한 번씩 더 살폈습니다. 흙이 메말랐는지도 확인했고요. 자리를 함부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요. 식물은 본디 한 자리에 자리 잡고 사는 생명체라, 원래 위치에서 햇빛 쪽으로 고개 돌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등 그 자리에서 생존의 조건을 최적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식물을 왔다 갔다 옮기며 괴롭히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예쁘다고 온갖 장소 다 옮겨 다니며 여기저기 집안 곳곳에 두었던 지난날 나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아무튼 식물은 제발 가만히 한 자리에 두라는 방침, 이번에 똑똑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전보다는 좀 덜 신경을 쓰며, 하지만 관심의 끈은 놓지 않은 상태로 식물들과 함께 지내 온 지 2~3개월이 지났을까요? 이 녀석 들...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몬스테라는 아침마다 잎끝에 맺힌 이슬로 인사를 하고요. 아스파라거스와 테라리움은 새싹이 무럭 무럭 돋아났어요. 그 새싹을 보는 기분은 생각보다 참 감개무량하더군요. 이 작고 여린 연둣빛 새싹이 이렇게 기특할 일인가요. 그저 물 만 줬을 뿐인데 새싹이 돋아나다니요... 이 새싹을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식물을 키울 때마다 곧잘 시들고 했던 이유가. 오히려 지나친 관심과 애정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자주 관심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서로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서로 자유로워야 좋은데 말이에요. 막상 적당한 관심과 무관심을 지켰던 식물은 알아서 잘 크더군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식물은 역시 생존에 관해서는 인간보다 베테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구에 정착해서 진화해 온 생명체가 바로 식물이기에, 저는 저 여린 새싹에게서 조금 비약하자면 생존과 진화의 한 수를 배웠달까요.

이제 더 푸르를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필 여린 새싹 같은 연둣빛이 조만간 더 짙은 청록빛으로 물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봉소식을 알리는 **라레 꼬막전**

이 주 현 푸드 칼럼니스트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겨울부터 따스한 햇살 내리쬐는 초봄까지 꼬막은 제철을 맞는다. 어둡고 캄캄한 갯벌 속에서 꼬막은 입을 꽉 다문 채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버텨 나간다. 그 사이 단단한 껍질 안에서 꼬막살의 맛과 영양이 무르익는다. 별다른 조리 없이 꼬막을 데쳐 살만 발라 먹어도 달큰한 육즙이 터져 나온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 넘치는 꼬막의 맛이다.

이 작은 알맹이가 우리 입안에 들어오기까지 꽤나 험난한 여정을 겪는다. 갯벌에서 꼬막을 채취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아낙의 몫이었다. 아낙들은 널배를 타고 꼬막을 걷어 올린다. 한 번 빠지면 허리까지 푹푹 들어가는 갯벌 위에서 널배에만 의지하여 이동한다. 한 다리의 힘으로만 갯벌을 힘차게 밀며 끝이 안 보이는 갯벌을 부지런히 누빈다. 여기에 초봄까지 부는 쌀쌀한 칼바람은 꼬막 채취를 더 힘들게 만드는 요소다. 그렇게 채취한 꼬막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고단한 아낙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이 왔음을 알리면서.

작은 한 알에 담긴 풍부한 영양 효능

꼬막은 예로부터 연안에 사는 어민들의 식량으로 애용되었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났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해산물이었다. 꼬막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또한 헤모글로빈, 철분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빈혈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좋은 음식이다. 이 외에도 자양강장제의 원료인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박도독 꼬막요리

데치고 나면 껍질을 쩍 벌리는 다른 조개류와 달리 꼬막은 입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꼼꼼히 해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손질에 제법 손이 간다. 무리하게 손톱으로 껍질을 벌리다 다칠 수도 있 다. 이때는 먼저 꼬막 뒤쪽의 이음매 부분에 숟가락을 댄다. 지렛 대 원리를 사용하여 살짝 비틀어주면 손쉽게 껍질이 딸깍 하고 분 리된다. 속살을 먹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쫄깃한 식감 과 달큰한 육즙으로 보답을 해주니 고생을 감수할 만하다.

간장 양념을 슥슥 얹어 먹는 꼬막숙회는 보양식부터 술안주까지 모든 자리에 잘 어울리는 요리이다. 이때 간장 양념은 일반적으로 고춧가루, 청양고추 등을 넣어 만든다. 하지만 봄에 나오는 미나 리, 냉이 등 향긋한 제철 채소를 추가하면 잃어버린 입맛까지 깨 워주는 제철 양념장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조금 더 품을 들일 수 있다면 꼬막무침과 꼬막비빔밥으로 즐겨도 별미다. 고춧가루 양념에 꼬막살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금방 꼬 막무침이 완성된다. 여기에 하얀 소면과 채소 한 줌 넣으면 풍성 한 비빔국수가 된다. 쌀이 좋다면 하얀 쌀밥과 꼬막무침을 섞어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까지 뿌리면 꼬막비빔밥이 완성된다. 아 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할 맛이니 밥도둑이 따로 없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카레가루 꼬막전'

보통 꼬막전은 쫄깃한 꼬막살과 다양한 채소를 넣고 부친다. 여기 에 간장 양념을 곁들이곤 한다. 하지만 카레가루를 넣고 부치면 굳이 양념이 따로 필요 없다. 꼬막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으며, 조개류의 비린 맛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편하게 시도할 수 있다. 레시피에서 소개한 재료 외에 모짜렐라 치즈나 게맛살 등을 추가해도 좋다. 입에 착 달라붙는 카레가루가 평범한 꼬막전을 더욱 새롭게 변신시켜 줄 것이다.

카레꼬막전 Recipe



필요한 재료

꼬막살 130g, 홍고추 50g, 계란 2알과 노른자 1알, 부추 20g, 부침가루 3큰술, 카레 가루 1~2작은술

* 간장 양념(선택): 간장 1/2~1큰술, 맛술 1큰술, 식초 1/2~1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통깨,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 고춧가루 추가

♥♥ 만드는 과정

해감한 꼬막은 데친 후에 껍질을 제거한다.



홍고추, 부추는 잘게 다져 준비한다. 전의 색을 더 노랗게 내고 싶다면 위해 계란 노른자 한 알을 따로 준비한다.



③ 꼬막살, 홍고추, 부추, 계란을 넣고 잘 섞는다.



부침가루와 카레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



5 기름을 두른 팬에서 한입 크기로 모양을 잡아 부친다.



6 (선택) 분량의 간장 양념 재료를 잘 섞는다. 기호에 따라 양은 가감한다.



기상청이 기록한 시대의 온도

이 예 림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지난해 여름, 기상청은 매주 기록적인 폭염 브리핑을 열었다. 전국 평균기온 25.6도, 평균 최저기온 21.7도, 열대야 일수 20.2일. 1973년 관측 이래 최고치들이 차례로 발표됐다. 매일 같이 경신되는 기록 앞에서 예보관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더위는 예보대로 찾아왔다. 6월부터 시작된 이른 열대야, 39일간 지속된 서울의 밤샘 더위, 9월까지 이어진 폭염주의보까지. 매일의 관측값들은 그간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기상청이 발표한 수치들은 현장에서 생생한 현실이 됐다.
33도를 웃도는 물류센터 지하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손바닥 크기의 선풍기 하나에 의지했다.
밤새 식지 않는 아스팔트 위에서는 노숙인들이 지친 몸을 뉘었고,
메말라가는 논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전국 곳곳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이 순간들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33도라도 에어컨 아래와 환기조차 안 되는 작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기계가 측정한 수치와 사람이 느끼는 온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





매일의 관측값은 시간이 흐르며 하나의 패턴을 만든다. 개별 수치들이 모여 시대의 기후가 되고, 그 기후는 다시 우리 사회의 초상이 된다. 더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체감하는 온도는 서로 달랐다.

이러한 현실을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기상청의 관측망은 나날이 촘촘해졌다. 전국 각지의 온도계가 매 순간을 기록하고, 습도계가 대기 중 수증기량을 측정한다. 슈퍼컴퓨터는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한다.

작년의 폭염이 보여준 것처럼, 기상청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전한다. 에어컨 바람 아래 스쳐 지나간 무더위와 지하 작업장에서 땀으로 지새운 여름은 결코 같은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하나의 관측값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겪어낸 날들의 기록이 됐다.

한 줄의 기록이 모여 시대의 기후가 되듯, 개인의 체감이 모여 시대의 온도가 된다. 기상청이 남기는 수치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봄만 되면 푸석푸석해가는 파부, 물때부를 지키는 방법



날씨가 따뜻해지고 외투가 얇아지면서 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포근한 바람, 화사한 햇살을 즐기며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인데요. 혹시 외출 준비를 할때마다 거울을 보며 푸석해진 피부에 한숨을 짓고 있진 않나요? 혹은 환절기에 피부 균형이 무너져 고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봄철 피부 문제의 원인으로 봄날씨, 강한 자외선, 황사 등이 있는데요. 환절기에 피부가 예민해지는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지 제16기 기상청 국민정책기자단

포근한 봄볕? 자외선 강한 봄볕 차단하기

'가을볕에는 딸을 쪼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쪼인다'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봄볕은 가을 볕보다 자외선이 강해서 기미가 쉽게 끼고 얼굴이 금방 타기에, 딸이 아닌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속담인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봄은 가을보다 일조시간이 길어 일사량이 더 강합니다. 봄철의 평균 일사량이 가을의 1.5배에 달한다는 연세대 대기과학과의 연구 결과도 있죠. 봄의 자외선 지수 또한 가을보다 높습니다. 특히 봄빛의 자외선 은 겨우내 둔감해진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가 직접 봄볕에 노출되면 기미가 생기고, 노출 정도가 심할 경우 피부 화상이나 주근깨, 피부 주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의 종류와 영향력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320~400nm 파장 영역으로, 장기간 노출시 주름과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B는 280~320nm 파장 영역으로, 10% 정도 만이 지표에 도달하는데요. 에너지가 강해서 장기간 노출시 피부암, 백내장 등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체내에 필요한 비타민D를 합성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외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이 가장 짧고 위험한 자외선 C는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다 차단해 주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내 피부를 위한 봄맞이 자외선 차단 꿀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제를 바르고 양산, 선글라스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평소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고 자외선 지수별 대응요령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테마 날씨' 선택 후 '생활기상정보〉생활기상지수'를 클릭하면, 궁금한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대응요령을 확인할 수 있으니, 외출 전 확인해 보시는 건어떨까요?



피부 건조를 가속하는 봄 날씨

봄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피부 각질층의 정상 수분 함량은 15~20%입니다. 그러나 봄은 다른 계절들에 비해 공기 중 수분량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피부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각질이 일어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피부가 큰 자극을 받아 갈라지거나 염증까지 생길 수 있죠.

봄철 건조해진 피부를 관리하는 꿀팁!

이러한 봄에 맞서 피부에 대비가 필요하겠죠? 봄철 피부 관리법 첫 번째는 간단한 샤워입니다. 얼굴과 달리 몸은 피지 분비가 적고 대부분 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는 하루에 한 번 15분 이내가 적절합니다. 참고로 온천이나 사우나 등은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에는 탁월하지만, 피부 건조에는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수분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또한,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습도 유지가 중요한데요. 봄철의 실내 습도는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를 자주 하고,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수건에 물을 적셔 널어두면 적정 습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봄에 불어오는 모래 먼지, 황사

봄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는 우리의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관으로 깊숙하게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황사는 먼지 연무의 일종으로, 모래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며 서서히 지상으로 낙하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주로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긴소매 옷을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황사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죠. 더불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섬유질이 많은 과일과 채소,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과 채소,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B와 비타민C, 엽산은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침투했을 때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피부가 예민해지는 여러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외선, 날씨, 황사 등 여러 요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개해 드린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을 활용해 이번 봄에는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새단장한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으로

놀러오세요~!

이지훈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은 낙뢰 발생기, 구름 발생기, 토네이도 발생기 등 체험 콘텐츠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새로운 홍보관 전시 공간과 더불어 3차원 가시화 시스템 전시, 기상캐스터 체험 공간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의 오감맞춤형 기상·기후 교육프로그램

기상홍보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

기상홍보관의 전체적인 환경개선 방향

기상예보와 특보, 강원예보구역, 시대별 기상 관련 역사 전시 공간 춘천기상대는 2023년부터 춘천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감맞춤형 기상·기후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매년 유치부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동아리 등에 신청을 받아 매주월요일과 목요일에 교육을 진행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상홍보관 및 관측장소 견학을 포함하여 2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기상대의 기상홍보관은 기상이 포토존, 낙뢰 발생기, 구름 발생기, 토네이도 발생기, 기상캐스터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체험 장비의 노후화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체험 장비의 제작사를 알 수 없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24년에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의 전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았다.

기존 전시 공간의 벽면은 텍스트 위주의 설명 공간이었으나, 시각적인 효과를 주로 하고 텍스트 설명은 간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3차원 가시화 시스템으로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기상캐스터 체험 공간을 넓혀 쾌적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상예보 공간에는 실제로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생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도의 예보 특징인 양간지풍과 동풍에 의한 대설효과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수치예보와 슈퍼컴퓨터의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였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의 기상 관련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설명·전시하고 있다.

기상관측장비의 과거와 현재

기상홍보관 입구와 마주 보는 전시 공간에는 기상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 공항기상관측장비, 기상레이더, 기상항공기, 기상1호 기상관측선 등 다양한 기상관측장비와 각각의 관측 원리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측장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과거에 쓰이던 관측장비인 풍향풍속계, 온도계, 습도계, 기압계 등을 전시하고, 벽면에는 현재 관측장비의 사진과 관측 원리 등을 설명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3차원 가시화 시스템 (지구ON) 전시 공간

이번 기상홍보관 환경개선의 메인 전시물이라 할 수 있는 3차원 가시화 시스템 '지구ON'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기후적 현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구이다. 구 형태의 전시물로 모형에 영상 시스템을 3차원으로 구동시켜, 지구의 대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제로 지구의 움직임을 보는 듯한 체험을 제공한다. 이 공간에서는 전 세계 육지구조, 해양구조뿐만 아니라 오존가스의 분포, 빙하면적도 등 총 45개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기상캐스터 체험 공간

기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기상캐스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실 구석에 있던 체험 공간을 개선하였고, 기존 웹캠 수준의 카메라도 캠코더를 준비하여 보다 나은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체험자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방문객 누구나 기상캐스터가 되어 볼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구·해양·우주 관측장비 소개

3차원 가시화 시스템(지구ON)

춘천기상대 기상홍보관은 기상·기후 관련 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강원도 영서 지역의 유일한 공간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다양한 전시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방문하여 기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기상 꿈나무로서의 꿈을 키워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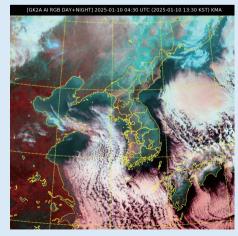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위성데이터 활용**

이도훈 국가기상위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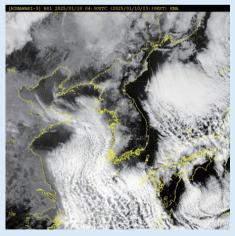
추운 겨울이 가고 국가기상위성센터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기후변화 속에서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위험기상 및 자연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위성 자료를 생산·분석하여 신속하게 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어떤 형식의 위성 자료를 생산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지, 위성 자료는 어디에 활용되는지, 수집·제공하는 위성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고 보는 국내·외 위성의 종류와 활용

혹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자료가 100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외 위성 자료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이니, 그 종류가 얼마나 방대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보 지원에는 천리안위성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외 위성 자료도 활용되는데요. 현재 센터에서는 GOSAT(일본), GCOM-W1(일본), Himawari9(일본), FY(중국), DMSP(미국), NOAA(미국), S-NPP(미국), GOES(미국), AQUA(미국), TERRA(미국), METOP(유럽연합), METEOSAT(유럽연합), SENTINEL(유럽연합) 등 30개 이상의 국외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예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도 국내·외 위성 자료를 분석하며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래의 영상 이미지처럼 같은 날짜에 관측된 자료라도 사용된 위성과 활용한 채널에 따라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위성센터 자료 활용의 흥미로운 부분이랍니다.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한반도 (RGB 주야간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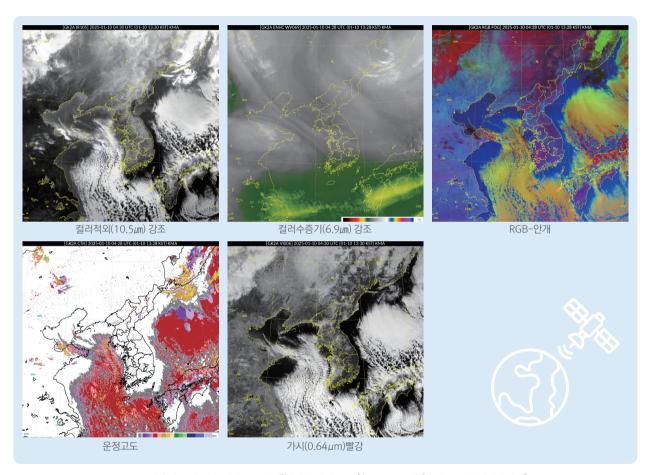


국외위성으로 관측한 한반도 (가시영상)

알고 보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자료

천리안위성 2A호의 자료만 보더라도 가시 영상, 근적외/단파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 적외 영상 등 기본 자료 16종이 생산됩니다. 현재, 분석 영상 기본 자료(강우강도, 구름탐지, 대기안정도지수, 연직습·온도프로파일, 오존량, 대기운동벡터 등 23종)보다 훨씬 더 많은 기상 산출물이 생산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가강수량, 강수확률, 구름 층/고도, 운량, 운형, 구름광학두께, 산불탐지 등 부가산출물 29종을 포함하면 총 52종)

천리안위성 2A호 자료는 관측 영역에 따라 전구(FD) 10분, 동아시아(EA) 10분, 확장 지역(ELA) 2분, 한반도(KO) 2분, 지역(특별) 관측 (LA) 2분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파일 형식은 이미지(png), 데이터[NetCDF(nc), Buffer(bfr/bufr), Binary(bin)]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답니다. 또한, 국외 위성 자료도 원시 자료를 수신받아 자체 산출물을 개발하거나 외국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활용합니다.



2024년 활용도가 높은 상위 5종 영상[천리안 위성 2A호](2025.1.10.) [출처: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자료 제공 방법

국내·외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외부 서비스, 내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 서비스의 경우, 위성센터 누리집, DCPC(Data Collection or Production Centre), RFS(Real-time FTP System), 외부 Open API(공공 데이터 포털, 기상자료 개방 포털, 기상청 API 허브)를 활용한 웹 서비스, 위성센터에 직접 문의 또는 요청하여 진행되는 오프라인 자료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부 서비스로는 기상청 내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며, 위성정보시스템 2, 위성정보시스템 3, 내부 Open API를 활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내·외부 서비스를 통해 자료의 용량, 기간 등을 조정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문한 위한 이루어지 있다.

기상청 청년인턴에
도전해보세요



특별한 기회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기상청에서는 다양한 국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23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기상청에서도 열정을 가진 유능한 지역 청년들의 지원으로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똑똑한 청년인턴의 역할은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서툴지만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조직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을 보며, 제도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근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기상청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체험한 내용을 공유하며, 특별한 기회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전의 아이콘, 청년인턴을 소개합니다.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고고~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체험



예보센터 견학

010171 1111

어떻게 기상청 청년인턴에 도전하게 되었나요? 준비부터 합격까지!



청년인턴 **이채윤**

Q. 기상청 청년인턴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준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한 청년인턴 이채윤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날이 생생합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나름대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처음이라 막막하고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 많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천천히 답변하려고 노력했고, 간절한 마음 덕분인지 기상청 청년인턴에 합격하여 대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010171

두근두근 첫 출근, 기상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며 인턴으로 살아가기



Q 기상청 청년인턴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첫 출근이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요.

무더운 여름, 긴장 속에서 첫 출근을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인턴 생활을 하며 여름과 가을을 보내고 6개월이 마무리되는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획운영과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주요 행사 및 회의 운영, 매체 협업, 기상 관련 언론자료 조사, 카드뉴스 제작 등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폭염 통계자료를 정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연도별 폭염피해액과 온열질환자수를 조사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보와 날씨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에도 힘쓰는 기상청의 중요한 역할을 체감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전화 응대와 결재 방법 등 소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업무를 숙지하고.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영상회의와 같은 주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010171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다양한 기상업무 체험과 정책현장 탐방



Q.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기상 전공이 아니었기에 생소한 것이 많았지만, 청년인턴을 하면서 기상업무를 체험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기상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관측과 관련하여 강수량계, 레이저적설계, 풍향풍속계 등 다양한 기상관측장비를 관측장소에서 직접 보고, 관측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립대구기상과학관에서 기상과학을 즐겁게 체험한 것도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정책현장 탐방의 기회도 있었는데요. 기상청 서울청사를 방문하여 정보통신실, 앙부일구, 측우기 등의 시설 견학을 통해 기상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공직박람회, 순환경제 페스티벌,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전 등 정책박람회와 기상기후 세미나, 변화관리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010171 7

6개월의 인턴 생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



Q. 기상청 청년인턴을 통해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 소감을 들려주세요.

청년인턴으로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많이 배우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부족함이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잘 가르쳐주 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인생 선배로서 따 뜻한 조언을 해준 직원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책현장 탐방

01017174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선물해주는 청년인턴,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Q.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인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공공기관 입사를 원하거나 공직사회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용기를 내어 청년인턴에 도전해보길 권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시선으로 앞으로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학생으로서 겪어보지 못한 사회에서의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느낄 좋은 기회입니다. 두근두근 첫 출근, 첫 설렘을 경험하고 싶은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추천합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선물해주는 청년인턴 제도, 특별한 경험을 꿈꾼다면 기상청 청년인턴에 꼭 도전해보세요!















원래레이더는 2차세계대전 당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나 오늘날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장동언 기상청장, 설 명절 맞이 온정 나눔 (1월 21일)



장동언 기상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대전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진행했고, 기상청 봉사동호회 단비회 회원 등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후원금을 기부하고 명절 위문 물품 100세트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기상청 제17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 (1월 24일)



장동언 기상청장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제 17기 국민정책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자 단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동언 기상청장, **부산지역 재해 현장 방문** (1월 16일)



장동언 기상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지하차도와 동천 인근의 과거 침수지역을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 부산시 동구 부구청장 등 부산시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승희 기상청 차장,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1월 22일)



김승희 기상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기상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25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한강 결빙 관측 쇼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 다녀도 될지~

기상청이_알려드립니다 #한강고양이



"라떼는 말이야~ 한강에서 썰매를 탔어!"라는 옛이 야기가 이제는 '한강 위로 걸어 다니는 고양이'라는 민으로, 한강 결빙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은 한반도의 중부 지방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하천 의 길이가 무려 494.4km에 달합니다. 한강의 어느 구간이 얼면 공식적인 기록으로 발표할까요? 기상 청은 계절의 빠르고 늦음, 지역적 차이 등을 관측·분 석하여 기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계절관측'을 하 는데요. 벚꽃 개화와 단풍 물듦 등과 같이 한강 결빙 도 중요한 관측 대상입니다. 과연 올겨울에도 고양 이는 한강을 건넜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강 결빙 의 대표 관측지점과 기준, 결빙 소식까지 기상청 유 튜브에서 쇼츠로 만나보세요!



〈하늘사랑〉은 기상청 행정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X)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행정 누리집(홈페이지) 〉 자료실 〉 기상간행물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날씨를 주제로 국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며 소통합니다. 특히, 날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상·기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보부터 생활 속 날씨 정보 활용법과 기상과학 풀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기상청 SNS 채널을 방문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구독 또는 팔로우, 콘텐츠 '좋아요'를 누르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 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유튜브 youtube.com/@기상청



블로그 blog.naver.com/kma_131



X(트위터) x.com/kma_skylove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ma skylove



페이스북 facebook.com/kmaskylove





이정숙

통영 벽방산 정상에서 바위틈을 비집고 자라난 소나무는 그 어떤 분재보다도 고결하며 아름다운 수형을 뽐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 당신의 날씨 안에서도 자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



수도형

강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며 새 계절의 시작을 알려 주는 복수초는 우리나라 각처의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와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자랍니다.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학옥희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들이 행해집니다. 그중 달집태우기는 불을 통해 액운을 쫓고 소망을 비는 의식으로, 나무나 짚을 쌓아 만든 큰 구조물을 태우며 신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민속 신앙으로 여겨집니다.





₫ 김경남

충남 천안시 북면 인근 임도에서 눈썰매를 타다 관측한 두루마리 눈입니다. 북유럽과 미국 북부에서도 희귀하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측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온도, 습도, 바람(또는 중력)의 조건이 딱 맞아야 생긴다고 하네요. 13세 남자아이들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딱딱했으며, 1개씩 떼내어 굴렸을 때 3~40m 아래까지 깨지지 않고 원형을 유지해 굴러갔습니다.





🛕 김은미

경남 사천시의 아름다운 포구, 삼천포의 깊고 그윽한 풍경에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 우향화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 지 한참인데도 날씨가 춥고 눈도 제법 내려, 산촌 외진 곳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 주네요. 어린 시절에는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면서 재미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눈이 많이 쌓이면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kmanews@korea.kr)로 3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성함연락차·주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기상청에서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목적): 성함, 연락처, 주소(본인 확인 및 상품권 지급)
- 보유 및 이용기간: 1년(개인정보 수집·이용 후 즉시 파기)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상품권 지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상품권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역사 속 기상학자 +

"공기에도 힘이 있을까?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공기에도 무게가 존재한다."

Evangelista Torricel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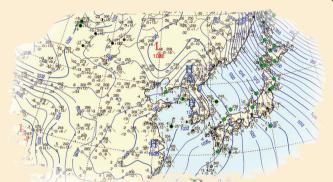
에반젤리스타 토리첼리(1608~1647) Evangelista Torricelli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 늘 고기압과 저기압을 접하곤 합니다. 기압(대기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입니다. 갈릴레이의 제자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해 대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지하수 우물파기 작업을 이어받은 토리첼리는 우물의 깊이가 10.3m를 넘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분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힘의 원천이 공기의 압력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즉, 1기압은 물기둥 10.3m, 수은주 76cm 라는 걸 알아냈고, 훗날 1기압은 1.013hPa이라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을 통해 기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인류는 수은 기압계를 활용해 기압을 측정하고, 예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퇴계정",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토리첼리를 떠올려 봅니다.



수은 기압계







기상이의 하나도()

맹동요령 [|사작전

강풍이 예보되었을 때



강풍특보발표시



강풍특보발표시



강한 바람이 불면

꼭 지켜주세요!



